

부부의 성격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결혼기간별 비교

The Impacts of Personality Differences Between Husbands and Wives on Marital Conflict : Over the Length of the Marriage

이영숙*·박경란

군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인제대학교 생활상담복지학부, 인간환경복지연구소

Yi, Yeong Sug*·Park, Kyung Rhan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Kun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Human Counseling and Welfare, Inje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differences and marital conflict.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ined what impact, if any, exists between groups married for fewer than five years(Group 1) and those married for five or more years(Group 2). The sample consisted of 368 married couples. Each couple was asked to complete two questionnaires: one for measuring marital conflict and another for assessing husbands' and wives' personalities using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MBTI).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between Group 1 and Group 2, marital conflict showed no differences. Second, no marital conflict, caused by the four types of personality, was found in Group 2. However, for Group 1, the marital conflict perceived by wives was influenced by J-P and S-N types of wives, and the marital conflict perceived by husbands was affected by J-P type of husbands and S-N type of wives. Third, for Group 1, the marital conflict perceived by wives was influenced by the difference between S-N types. The marital conflict perceived by husbands was affected by differences between S-N types and between J-P types. No marital conflict, caused by the difference of the four types of personality, was found in Group 2.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our types of personality and the differences in personality types between the couples affected marital conflict, depending on the duration of marriage.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the newly married couple to comprehend their spouse's personality and to adjust their lifestyles stemming from their personality differences.

Keywords: personality, marital conflict, marriage duration

I. 서론

현대의 경쟁적인 사회에서는 안정과 휴식을 제공하는 가족의 기능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부부중심의 핵가족에선 부부간의 친밀화와 평등화, 상호독립적인 욕구가 증대하면서 결혼생활의 안정성보다는 부부간의 만족

도를 더욱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오늘날의 이러한 추세는 이전의 부부보다 부부간의 친밀감과 결혼생활의 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만약 이것이 충족되지 못할 때에는 결혼생활의 지속이 어렵게 되어 해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십여 년 전부터 이혼부부가 급격히 늘

* Corresponding author: Yi, Yeong Sug
Tel: 063-469-4623, Fax: 063-469-4628
Email: ysyi@kunsan.ac.kr

어나기 시작하여 한 해 이혼건수가 1994년의 65.0천 건에서, 2000년 119.5천건, 2003년 166.5천 건으로 최고치에 달한 후 2008년 116.5천 건까지 잠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2009년에 124.0천 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0). 이 같은 이혼율의 증가는 많은 부부들이 원만한 부부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데, 불안정한 부부관계는 당사자들은 물론 그들의 자녀를 비롯한 가족원 모두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로까지 심각하게 파급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1970년대 이래 관련문헌들은 가족해체 및 이혼율의 증가는 결혼생활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Kwon & Chae, 1999), 결혼만족도, 결혼적응, 결혼안정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심리적·대인간·사회인구학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고찰해 왔다(김희진, 2005). 그 가운데서도 개인의 성격은 오랜 동안 부부관계의 질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Lussier와 Sabourin(1999)은 부부의 성격특성은 본인과 배우자의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결혼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 배우자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의 연구(예: Chronia, 2006)에서는 부부간 상호작용 과정 그 자체보다 안정적인 개인내적 특성이 부부관계지속에 보다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혼과 관련된 개인내적 변인이 주로 성격특성임이 밝혀지고 있다(김경미, 김영희에서 재인용, 2009; Epstein & Baucom, 2002). 이러한 지적은 부부의 성격차이(46.6%)가 이혼의 최우선 순위로 밝혀진 통계청(2010) 자료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성격차이와 결혼갈등 간의 관계를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들의 몇 가지 문제점 및 보완점을 고려하여 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이제까지 성격을 다룬 많은 연구들(예: 오선주, 2002; 이정은, 이영호, 2000; Kurdek, 1995; Lussier & Sabourin, 1999; South *et al.*, 2008)은 후천적으로 이루어진 개인의 성격 특성(traits) 면에서 부부갈등 및 결혼만족도의 결정요인을 규명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천적으로 개인이 선호하는' 그래서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MBTI 성격유형 측면에서 결혼의 질을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성격유형(type)의 관점에서 부부관계를 규명해 보는 것은 자신과 배우자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여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오히려 편견에 따른 갈등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마이애스, 커

비, 1993/1999). 둘째, 현재까지 부부간의 성격적 유사성이 상보성보다 결혼생활의 성공을 더 잘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 견해이지만(장휘숙, 1997), 부부의 성격이 서로 유사할수록 관계에 만족하는지, 아니면 서로 불일치할수록 갈등하는지와 관련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김은지, 박재호, 2010). 즉 일부 연구들은 성격의 차이가 적은 부부일수록 결혼만족도(윤호균, 이선희, 2000; Gonzaga *et al.*, 2007)는 더 높게, 부부갈등(이하식, 김경연, 2005; Dawson, 1991)은 더 낮게 지각하는 경향이라고 밝히고 있는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부부의 성격유사성과 결혼만족도는 유의한 상관없이 없으며(고재홍, 전명진, 2003), 긍정적 감정, 갈등조정방식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예: 공성숙, 2010)것으로 나타나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부부사이에 유사성이 낮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는가, 만약 이혼을 한다면 어느 시기에 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확고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허윤미, 2001). 셋째, 부부의 성격유사성 정도가 결혼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연구들의 거의 대부분은 결혼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고찰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결혼기간별로 부부의 성격 차에 따른 결혼의 질을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2009년도 이혼한 부부 중 결혼기간 10년 이내(0-4년 동거부부 27.2%, 5-9년 동거부부 19.1%)인 경우가 전체의 46.3%에 달하였으며, 이혼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을 고려한다면 성격차이(46.6%)로 인한 갈등이나 불화는 다른 어떤 단계의 부부보다 결혼초기 단계의 부부들에게 월등히 높게 작용한 것으로 간주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결혼기간이 길어지면서 부부는 여러 측면에서 서로 유사해 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되기도 하나(Feng & Baker, 1994),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선천적인 성격차이에 의한 부부갈등은 결혼초기에 더욱 밀접하게 작용되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부부의 MBTI 성격과 이들이 지각하는 결혼에서의 갈등 간의 관련성을 결혼초기 부부 집단과 그 이상 된 부부집단으로 나누어 비교·고찰해 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결혼생활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부부의 성격 그 자체 때문인지, 아니면 지각된 성격차이에 대한 부부의 적응이 관련되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이 결혼지속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부부갈등에 미치는 본인과 배우자의 성격

및 성격차의 영향은 결혼지속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II. 관련문헌 고찰

1. 성격개념 및 유형

성격이란 타고 나는 것인가, 만들어지는 것인가? Papalia와 Olds(1995)는 성격은 유전적인 영향 또는 환경적인 영향, 그 어느 한 측면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격의 특정부분은 최소한 부분적으로 유전된다고 보았다. McGue *et al.*(1993)도 성격특성은 광범위한 범위로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유전적인 특성에는 활동수준, 사회성·수줍음, 신경증적 정서적 반응 등이 포함된다(Robinson *et al.*, 1992).

그러나, Jung의 이론에 근거하면 선천적이라는 것은 유전적이라는 말과 구별되며, 여기에서 선천적이란 학습이전의 자연적인 경향을 의미한다(김정택, 심혜숙, 1995).

본 연구에서는 Jung의 심리유형 이론에 근거하여 성격을 규정하고자 한다. 이 이론에서는 인간이 나타내는 행동의 다양성은 개인이 인식하고 판단하는 특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며, 이러한 행동의 차이는 우연에 의해 일어난다고 본다(김정택, 심혜숙, 1995; 마이어스, 맥컬리, 1985/2003). 즉, 선호경향에 따라 인간의 행동은 규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나타나며, 각 유형에 따라 에너지의 방향이 외향형(Extraversion; E) 또는 내향형(Introversion; I)으로, 외부의 정보를 인식하는 방법이 감각형(Sensing; S) 또는 직관형(Intuition; N)으로, 수집한 정보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 사고형(Thinking; T) 또는 감정형(Feeling; F)으로, 그리고 이에 따른 일상생활의 행동양식이 판단형(Judging; J) 또는 인식형(Perceiving; P)으로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한국심리검사연구소, 2003).

이러한 MBTI 성격의 유형이론(type theory)은, 성격의 특성이론(trait theory)이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특성에 관심을 두고 건강과 병리를 예견하는 것과는 달리, 각 개인의 성격유형을 좋고 나쁜 것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2. 부부갈등

1) 부부갈등의 개념

갈등이란 개인의 어떤 관심사, 욕구, 욕망, 바람에 대한 만족을 상대방이 좌절시키고 있거나 혹은 좌절시킬지도 모른다고 개인이 지각하는 어떤 상황을 말한다(Berko *et al.*, 1997). 이것은 서로 맞서는 목표, 자원사용의 불일치, 또는 태도와 가치에서의 차이 등에 의해서 일어난다. 따라서 부부갈등이란 부부가 가정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겪는 긴장된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다. 부부는 성장한 배경이 각기 다르고 인성적 특성이 다르므로써 필연적으로 상호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조유리, 김경신, 2000). 특히 부부와 같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인간관계에서보다 자신을 더 많이 노출하고 더 많이 상호의존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Dominian, 1995), 우리나라 부부 갈등의 요인구조는 성격문제로 인한 갈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김갑숙, 최외선, 1992; 강학중, 유영주, 2003). 결혼 5년 미만의 결혼초기 집단을 대상으로 부부갈등을 조사한 이선미, 전귀연(2001)의 연구에서도 모두 성격요인이 가장 높은 부부갈등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부간 갈등은 대부분 사소한 말다툼이나 긴장상태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큰 싸움으로 번지는 계기가 되며 부부결합의 안정을 해치기도 한다(김민녀, 채규만, 2006).

2) 부부성격차와 부부갈등

MBTI 성격유형에서 나타내는 선호성의 차이를 보면 첫째, 내향형과 외향형의 경우 외향성은 어떤 것이든 밖으로 표현하고 피드백을 받은 후에 결정하지만, 내향성의 파트너는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속에만 간직한 채 오직 마지막 결정만을 나누는 경향이 있다. 둘째, 감각과 직관이 서로 다른 개인들은 같은 사건도 서로 다르게 보기 때문에 서로 오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셋째, 개인 간에 사고와 감정의 차이가 있을 때는 한 파트너는 객관성을 좋아하고, 다른 파트너는 주관성을 중요시하기 때문 의사결정시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 넷째, 인식형과 판단형의 경우 주위환경의 질서는 판단형의 파트너에게 중요하며, 자발성과 자유는 인식형의 파트너에게 보다 중요하다(마이어스, 맥컬리, 1985/2003). 이러한 성격유형에 따른 선호성의 차이는 부부의 결혼생활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부성격차와 갈등관계를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Hicks & Elizabeth (1989)(윤호균, 이선희에서재인용, 2000)는 100쌍의 기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격유형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부부들중 40쌍은 부부치료중인 사람들이었고, 30쌍은 결혼만족을 하는 결혼기간 7년 이하, 그리고 나머지 30쌍은 결혼만족을 하는 결혼기간 7년 이상 된 부부들이었다. 그 결과 각 집단 간 그리고 결혼기간 사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부부치료 중인 집단에서 MBTI 성격유형의 4가지 척도의 선호점수(연속점수)상에서 모두 40점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특히 S/N 지표의 점수의 차이가 결혼의 만족과 불만을 뚜렷이 구별해 주었다. 이와 같이 부부치료 중인 집단에서 연속점수 상의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 것은, 부부간 성격의 비 유사를 의미하며 이러한 비 유사는 결혼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고 하였다.

한국심리검사연구소의 2001, 2002년 자료 가운데 부부 개인의 성격유형과 결혼만족도(1107명), 배우자관계만족도(1097명)를 분석한 김명준 외(2003)의 연구에서는 “최근 3년간 이혼을 심각하게 제안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결과가 전반적으로 인식형이 판단형보다 이혼 제안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성격지표 가운데 판단형/인식형의 행동양식이 결혼생활의 질과 가장 중요하게 관련된다고 보고하였다.

이하식, 김경연(2005)은 170쌍(340명)의 부부를 대상으로 성격유형의 일치·불일치가 부부갈등 및 갈등해결 양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조사·분석한 결과 부부 상호간의 성격유형이 지닌 지표(E/I, S/N, T/F, J/P)가 일치하는 숫자가 많을수록 낮은 갈등수준을 보였으며, 갈등해결 양식 또한 지표 불일치 집단에 비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갈등해결 양식을 보인다고 밝혔다. 즉 부부상호 간의 성격유형이 동일하거나 일치하는 집단일수록 부부의 갈등수준은 더 낮게 지각하게 되며 또한 긍정적인 갈등해결방식에 더 적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성숙(2010)의 연구에서는 부부클리닉 방문부부들의 경우 J/P 지표의 일치여부에 따라 남편의 이혼가능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부부간 J/P 지표의 불일치가 부부갈등의 수준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Williams와 Tappan(1995)은 성격유형에서 유사성이 많은 부부는 상이한 부부보다 오히려 더 갈등이 심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예를 들

면 부부 모두가 외향형인 경우 서로 경쟁적으로 이야기하려는 경향 때문에 갈등이 초래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는 성격유형이 유사할수록 결혼만족도와 긍정적 감정 등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3. 결혼기간과 부부유사성, 결혼생활의 질

우선 결혼기간에 따른 부부의 유사성을 고찰한 Blankenship *et al.* (1984), Feng 과 Baker(1994)는 결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부부는 여러 측면에서 서로 유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고재홍, 전명진(2003)은 결혼기간에 따라 가치관, 결혼관, 취미, 성격등 네 측면의 유사성 크기는 증가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부부의 유사성과 결혼기간과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종단연구의 자료를 이용한 Caspi *et al.*(1992)의 연구에서도 결혼기간과 부부 유사성간의 관계는 입증되지 못하였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횡단 및 종단 연구들은 결혼기간 동안의 상호작용 및 공유하는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부부가 닮아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유사한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기 때문이라는 일치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허윤미, 2001).

다음 결혼지속년수에 따라 결혼생활의 질이 어떠한가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상호 일치하지 않는다. 즉, 결혼초기의 부부들이 결혼생활을 보다 오래한 부부들에 비해 결혼만족도(김미령, 2009; 김민녀, 채규만, 2006; 홍성례, 유영주, 2000)가 높고 갈등(오선주, 2002; 천혜정 외, 2006)은 낮다고 밝힌 연구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결혼지속년수가 오래된 부부들이 결혼만족도(최규련, 1993)는 높게 지각하고 갈등(김갑숙, 최외선, 1992; 조성경, 최연실, 2006)은 낮게 지각한다는 연구들이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결혼지속기간과 부부의 결혼만족도(김화자, 윤종희, 1991; 박영화, 고재홍, 2005)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어 연구들 간에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Gottman & Levenson(2000; 김영희, 정선영에서재인용, 2007)은 생활주기에 따른 결혼만족도 변화를 연구하면서 결혼의 존속에는 두 번의 결정적인 기간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즉 첫 번째 결정적인 기간은 결혼 후 7년 이하로, 이 기간은 부부가 결혼생활이나 배우자에게 적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부갈등이 빈번히 이어나 결혼기간 중 가장 높은 이혼율을 보인다는 것이다. 두 번째 결정적인 기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녀를 기르면서 역할변

화와 같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이 요구되는 결혼 중기에 접어드는 결혼기간 14년차이다. 최근의 국제 연구진은 새로운 가정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최소 7년이 필요하다는 통념과 달리 실제 다수의 부부들은 결혼 5주년째 이미 위기를 겪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결혼생활의 고비, 7년 아니라 5년”, 2007). 소위 ‘신혼의 단꿈’이 지속되는 기간은 5년 미만이며 대다수의 이혼이 결혼 5년에서 10년 사이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이 단계를 무사히 넘긴 부부는 평생 해로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지적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부부 368쌍이다. 자료 수집을 위해 사회경제적 지위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전북과 경남 지역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20-50대 부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인 부부의 연령분포를 보면 만 21세부터 59세로 20대가 12.6%, 30대가 25.9%, 40대가 42.8%, 50대가 18.7%로, 평균연령은 41.4세이다. 학력은 대졸 이상이 21.3%, 중·고졸 72.4%, 초등졸이 6.3%이다. 결혼기간은 5년 미만(60개월미만)이 25.7%, 5년 이상이 74.3%이다. 가정의 경제수준은 중류가 57.5%로 가장 많았으며, 상류 10.0%, 하류 32.5%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성격유형검사

연구대상자들의 성격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김정택, 심혜숙에 의해 한국어판으로 표준화된 성인용 MBTI 검사지 자가채점용 GA형을 사용하였다. MBTI 검사지는 선호성을 나타내는 네 가지 지표, 즉 외향형/내향형(E/I) 21문항, 감각형/직관형(S/N) 26문항, 사고형/감정형(T/F) 23문항, 판단형/인식형(J/P) 24문항 등 총 9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대상자 남편과 부인 각자가 지각한 성격유형지표를 살펴보면 남편은 I(61.4%), S(93.5%), T(84.2%), P(52.2%)지표인 남성이 좀더 많았고, 부인은 E(52.2%), S(91.8%), T(63.6%), J(63.6%)지표인 여성이 좀더 많은 분포이다. 상관관계분석이나 회귀분석시에는

선호점수가 비연속점수이기 때문에 성격유형 지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연속점수로 환산하였다. 연속점수로 수정하는 방법은 선호유형이 E, S, T, J인 경우는 100에서 선호점수를 빼고(예, E의 선호점수가 20인 경우 80으로 환산됨) 선호유형이 I, N, F, P인 경우는 100에다 선호점수를 더한다(예, I의 선호점수가 20인 경우 120으로 환산됨).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성격이 내향적, 직관적, 감정적, 인식적 성격이 강하며, 반대로 점수가 낮을수록 성격이 외향적, 감각적, 사고적, 판단적 성격성향이 강한 것을 나타낸다(김정택 외, 2003).

부부간의 성격차이는 남편의 점수에서 부인의 점수를 빼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남편이 부인보다 상대적으로 내향적, 직관적, 감정적, 인식적인 성향일수록 점수가 높게(+ 부호) 나타나며, 반대로 부인이 남편보다 상대적으로 내향적, 직관적, 감정적, 인식적인 성향일수록 점수가 낮게(- 부호) 나타난다.

2) 부부갈등

부부갈등은 선행연구들(강학중, 유영주, 2003; 김갑숙, 최외신, 1992; 제갈정, 1993)을 참고하여 생활습관 차이 문제,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함께 보내는 (여가)시간문제, 돈 문제, 시댁과 관련된 문제, 의견·가치관차이 문제, 집안일 관리 문제, 성생활 문제 등 총 9개 문항으로 조사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은 ‘전혀 없는 편이다’(1점)에서 ‘매우 자주 있는 편이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있으며, 신뢰도 Cronbach's α 는 부인 .82, 남편 .85로 나타났다.

3) 결혼기간

결혼기간은 “현재 귀하의 배우자와 결혼한 지 몇 년 몇 개월 되셨습니까?”로 측정하였으며, 통계청 이혼보도 자료(2010) 및 결혼초기 적응을 다룬 선행연구들(김희진, 2005; 천혜정 외, 2006; 최정숙, 2008)을 참고하여 분석 시에는 60개월 미만과 60개월 이상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3.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SPSS/PC-WIN 12.0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paired-t 검증, 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앞서 회귀분석에 포함된 독

립변수간의 상관관계와 Durbin-Watson 검정을 실시하여 회귀분석에 문제가 없는지를 진단, 확인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결혼기간에 따른 부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은 5년 이상 된 부부들이 5년 미만 된 부들보다 갈등지각 정도가 약간 높았으나(부인 2.59>2.50, 남편 2.58>2.39) 부인과 남편 모두 결혼지속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초기 부부들의 갈등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조성경, 최연실, 2006)나 결혼초기 이후 부부들의 갈등이 더 낮다고 지적한 선행연구(오선주, 2002)와는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연구들 간의 결혼기간 범주의 차이나 또는 갈등척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해 볼 수 있다.

2. 부부간의 갈등에 미치는 부부성격의 영향

부인과 남편 각자가 지각하는 갈등에 미치는 성격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부인갈등, 남편갈등, 부인성격지표, 남편성격지표간의 상관관계

결혼기간	변수	부인갈등	남편갈등	WEI	WSN	WTF	WJP	HEI	HSN	HTF	HJP
5년 미만	부인갈등	1.00									
	남편갈등	.35*	1.00								
	WEI	.08	-.16	1.00							
	WSN	.43**	.58***	-.11	1.00						
	WTF	.28	-.11	-.14	.07	1.00					
	WJP	.49**	.06	.26	.15	.45**	1.00				
	HEI	-.02	.14	-.21	.24	-.07	-.28	1.00			
	HSN	-.13	-.00	.14	-.16	.11	-.06	-.15	1.00		
	HTF	-.11	-.16	.14	-.35*	-.28	.04	-.19	.08	1.00	
	HJP	.13	.29	.06	-.13	.03	.07	-.20	.43**	.26	1.00
5년 이상	부인갈등	1.00									
	남편갈등	.50***	1.00								
	WEI	.01	-.02	1.00							
	WSN	.11	.11	.08	1.00						
	WTF	-.11	-.13	-.08	.06	1.00					
	WJP	.02	.07	-.07	.21*	.16	1.00				
	HEI	-.04	-.00	.16	.08	.19*	-.06	1.00			
	HSN	-.01	.07	-.01	.19*	.09	.05	-.14	1.00		
	HTF	.13	.01	-.17*	.07	.08	-.00	-.08	.06	1.00	
	HJP	.07	.10	-.02	-.04	-.15	-.13	-.14	.18*	.31**	1.00

* $p<.05$ ** $p<.01$ *** $p<.001$

WEI: 부인태도, WSN: 부인인식기능, WTF:부인판단기능, WJP:부인행동양식
HEI: 남편태도, HSN: 남편인식기능, HTF:남편판단기능, HJP:남편행동양식

1) 부인이 지각하는 부부갈등에 미치는 성격의 영향

부인이 지각하는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본인의 성격과 배우자의 성격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부인이 느끼는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본인의 성격은 결혼기간이 5년 미만의 집단에서만 나타났으며, 5년 이상 된 집단에서는 본인의 어느 성격도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었다. 이에 비해 배우자의 성격은 결혼기간에 관계없이 부인이 지각하는 갈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결혼기간 5년 미만 부인들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본인 성격지표를 보면 인식기능(S/N)과 행동양식(J/P)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관적 인식을 하는 부인일수록, 인식적 태도를 선호하는 부인일수록 부부갈등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성격이 본인의 갈등에 미치는 설명력은 37.2%의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5년 이상 된 부인들의 갈등에 대한 설명력은 단지 0.2%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결혼지속기간이 짧은 부인에게는 본인의 성격이 갈등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결혼지속기간이 비교적 긴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또한 배우자의 성격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2) 남편이 지각하는 부부갈등에 미치는 성격의 영향
결혼생활에서 남편이 느끼는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

는 부부의 성격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표 3>, 남편의 갈등에 미치는 성격은 결혼기간 5년 미만의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혼지속기간이 5년 이상인 남편의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 성격 모두 갈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결혼기간 5년 미만의 남편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본인의 행동양식($\beta=.57$) 성격유형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편 본인이 인식적 태도를 선호할수록 부부갈등을 크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15.0%의 설명력을 갖는다. 이에 비해 남편의 갈등에 미치는 배우자(부인)의 성격은 성격지표 중 인식기능($\beta=.57$)의 영향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부인이 직관적 인식을 할수록 남편의 갈등은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전체 변량의 30.3%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결혼지속기간이 5년 이상인 남편의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 성격 모두 갈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지속기간이 5년 이상인 부인의 경우와 동일하였다.

이상의 <표 2>와 <표 3>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전반적으로 결혼기간이 5년 미만인 부인이나 남편은 본인과 배우자의 특정 성격에 의해 부부갈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혼기간이 5년 이상 된 부부는 배우자의 성격은 물론 본인의 성격에 의해서도 갈등이 야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의 성격으로 인한 부부갈등은 결혼기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2> 부인이 지각하는 부부갈등에 미치는 본인성격과 배우자성격

구분	본인				배우자(남편)			
	5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b	β	b	β	b	β	b	β
태도	2.3E-02	.10	-7.1E-04	-.00	-8.3E-03	-.03	-6.4E-03	-.02
인식기능	.13	.43**	3.3E-02	.12	-.134	-.35	-8.5E-03	-.02
판단기능	9.4E-03	.03	-3.7E-02	-.13	-7.0E-02	-.19	4.2E-02	.12
행동양식	7.7E-02	.39**	3.6E-03	.01	9.9E-02	.39	7.4E-03	.03
Adj R ² (%)	37.2		0.2		3.10		1.10	
F값	7.22***		.94		1.34		.65	
Durbin-Watson	1.97		1.93		1.98		1.90	

** $p<.01$ *** $p<.001$

〈표 3〉 남편이 지각하는 부부갈등에 미치는 본인성격과 배우자성격

구분	본인				배우자(부인)			
	5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b	β	b	β	b	β	b	β
태도	3.5E-02	.17	4.1E-03	.01	-2.1E-02	-.10	-8.8E-03	-.04
인식기능	-.10	-.30	2.0E-02	.06	.17	.56***	3.3E-02	.11
판단기능	-7.9E-02	-.23	-7.8E-03	-.02	-5.6E-02	-.19	-4.5E-02	-.15
행동양식	.13	.57**	2.2E-02	.10	1.6E-02	.09	1.6E-02	.07
Adj R ² (%)	15.0		0.7		30.3		8	
F값	2.67*		.46		5.34**		1.25	
Durbin-Watson	2.57		1.95		1.88		1.97	

* $p < .05$ ** $p < .01$ *** $p < .001$

〈표 4〉 부인갈등, 남편갈등, 부인성격지표, 남편성격지표간의 상관관계

결혼 기간	변수	부인갈등	남편갈등	태도차이	인식차이	판단차이	행동양식 차이
5년 미만	부인갈등	1.00					
	남편갈등	.35*	1.00				
	태도차이	-.11	.19	1.00			
	인식차이	-.42**	-.39*	-.28	1.00		
	판단차이	-.22	-.01	-.14	.17	1.00	
	행동양식차이	-.32*	.13	.18	.41**	.31*	1.00
5년 이상	부인갈등	1.00					
	남편갈등	.50***	1.00				
	태도차이	-.04	.01	1.00			
	인식차이	-.10	-.03	-.06	1.00		
	판단차이	.18*	.11	-.12	-.02	1.00	
	행동양식차이	.03	.02	-.06	.19*	.31**	1.00

* $p < .05$ ** $p < .01$ *** $p < .001$

3. 부부간의 갈등에 미치는 부부성격차의 영향

부인과 남편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의 성격차 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고<표 4>,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우선, 부인의 경우에는 결혼지속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성격차 중 부부의 인식기능의 차이($\beta = -.45$)가 부부갈등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의 성격은 상대적으로 감각적 성향이고, 아내의 성격은 직관적 성향일수록, 즉 남편이 부인보다 상대적으로 감각적인 인식을 할수록 부인의 갈등지각이 더욱 높아지는 것

을 의미하며, 부인의 부부갈등에 대한 성격차가 설명력은 19.6%였다. 그러나 결혼지속기간이 5년 이상 된 부인의 경우에는 부부갈등이 부부의 성격차로 인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지속기간이 5년 미만인 부인의 경우와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남편에 있어서도 결혼지속기간이 5년 미만인 집단에 서는 부부의 성격차 차이가 갈등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격 중 부부의 인식기능의 차이($\beta = -.45$)와 판단기능의 차이($\beta = .40$)가 갈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의 성격 중 남편의 성격은 상대적으로 감각적 성향이고 아내의 성격은 직관적일수

〈표 5〉 부인과 남편의 갈등에 미치는 부부성격차의 영향

구분	부인				남편			
	5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b	β	b	β	b	β	b	β
E/I 차	-3.7E-02	-.25	-4.7E-03	-.02	-8.0E-03	-.06	4.2E-03	.02
S/N 차	-.10	-.45**	-2.1E-02	-.09	-.11	-.56**	-7.8E-03	-.03
T/F 차	-3.6E-02	-.17	4.1E-02	.18	-1.2E-02	-.06	2.9E-02	.12
J/P 차	-6.4E-03	-.04	-7.0E-04	-.00	5.8E-02	.40*	-2.0E-03	-.01
Adj R ² (%)	19.6		1.3		18.7		1.6	
F값	3.56*		1.43		3.30*		.49	
Durbin-Watson	1.49		1.98		2.00		1.96	

* $p < .05$ ** $p < .01$

록, 즉 남편이 부인보다 감각적인 인식을 할수록 남편의 부부갈등 지각이 높아지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남편의 성격은 인식적 성향이고 아내의 성격은 판단적 성향일수록, 즉 남편이 부인보다 인식적 태도를 선호할수록 남편의 갈등지각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부부의 성격차가 남편의 갈등에 주는 설명력은 18.7%였다.

그러나 결혼지속기간이 5년 이상인 집단에서는 부부의 성격차이가 남편의 갈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지속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부가 지각하는 갈등에 본인과 배우자의 성격 및 부부의 성격차이의 영향은 결혼지속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몇 가지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 부부간의 갈등정도는 부인과 남편 모두 결혼기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지속년수에 따라 결혼생활의 질이 어떠한가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상호 일치하지 않는다. 즉, 결혼초기의 부부들이 결혼생활을 보다 오래된 부부들에 비해 갈등(오선주, 2002; 천혜정 외, 2006)은 낮다고 밝힌 연구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결혼지속년수가 오래된 부부들이 갈등(김갑숙, 최외선, 1992; 조성경, 최

연실, 2006)은 낮게 지각한다는 연구들이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결혼지속기간과 부부의 결혼만족도(김화자, 윤종희, 1991; 박영화, 고재홍, 2005)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어 연구들 간에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부부간의 갈등을 측정하는 방법 및 결혼지속기간의 구분상의 차이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부부의 갈등 정도를 결혼기간에 따라 규명하려는 시도는 대부분 결혼 초기 많이 발생하는 이혼 등 적응상의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한 목적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추후 보다 체계화된 척도를 사용하여 심층적으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인 및 배우자의 성격과 부부의 성격차이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은 부인과 남편 모두 결혼기간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즉 결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성격이 갈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나 결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무의미하였다. 이는 결혼 초기에 이혼이 많이 발생한다는 보고(통계청, 2010)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결혼생활에 적응 여부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 성격임을 지적한 기존 연구들(Lussier & Sabourin, 1999)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셋째, 결혼 초기의 부부갈등에 미치는 성격변인을 보면, 부인과 남편 공통적으로 본인의 성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간의 갈등에 본인의 성격이 중요한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간의 갈등이 발생하면 대부분 그 원인을 배우자의 탓으로 보는 경향이나, 지속적인 부부갈등은 본인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부부간의 갈등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부인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본인의 성격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남편의 갈등에는 본인의 성격과 배우자의 성격 모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그 설명량을 보면 남편 본인의 성격보다 부인의 성격이 주는 설명량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 부인의 이러한 차이는 결혼 초기에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이 주로 가정생활에 관련된 문제이며, 가정생활에는 남편보다 부인이 더 많이 관여할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도 부인에게 있다고 여기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이 아닌지 추측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된 연구가 축적된 이후 보다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인의 갈등에 남편의 성격의 영향은 무의미하나 남편의 갈등에 부인의 성격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본 결과는 부인의 성격이 결혼생활의 적응이나 갈등과 중요하게 관련된다고 하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예를 들어, 오선주(2002)는 주부들의 성격특성이 배우자의 성격특성보다 결혼갈등과 결혼만족도를 결정짓는데 더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Lussier와 Sabourin(1999)은 여성의 성격이 남성의 성격보다 자신의 결혼생활적응을 더 많이 설명한다고 하였다.

넷째, 결혼초기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변인들 중 S/N지표와 J/P지표가 유의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인의 갈등에 본인의 S/N지표와 J/P지표, 남편의 갈등에 본인의 J/P지표와 배우자의 S/N지표가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부부간의 성격차이 변인에서도 부인의 갈등에 부부의 S/N지표의 차이, 남편의 갈등에 부부의 S/N지표와 J/P지표의 차이가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MBTI 척도는 S/N이었고, 그 다음으로 J/P임을 밝힌 윤호균, 이선희(2000)의 연구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또한 부부클리닉 방문부부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J/P 지표의 일치여부에 따라 남편의 이혼가능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부부간 J/P 지표의 불일치가 부부갈등의 수준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지적한 결과(공성숙, 2010)와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MBTI 성격유형이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자기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심리적인 선호경향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그 유형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김정택, 심혜숙, 1995)을 이해한다면 부부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는데(마이어스, 커비, 1993/1999)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부간

의 성격유형을 이해하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하거나 갈등을 해결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5년 미만의 부부들에게는 부부의 성격유형과 부부간의 성격차가 갈등의 주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으나 5년 이상의 부부들에게는 거의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통계청(2010) 자료에 의하면 부부의 성격 차이가 이혼의 가장 주된 사유이며, 결혼기간 5년 미만의 부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Berko *et al.*(1997)은 부부가 결혼 이후 첫 번째 맞이하는 가정 확립기는 결혼 초기 몇 개월 안에 이루어지기도 하나 때로는 몇 년 동안 지속되기도 한다고 하면서 이 시기에 만족스럽게 적응하는 부부는 이후 부부간의 적응을 보다 잘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5년 이상의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부부들 역시 부부의 성격유형이 다르며, 부부간의 성격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이 부부갈등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본 연구결과가 중요하다. 이는 궁극적으로 부부의 성격차이 자체가 부부갈등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격차에 대한 이해부족이 부부갈등을 높이고 가족해체를 초래하는데, 만약 결혼 이전 커플간에 충분한 상호작용 및 적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결혼한 부부들의 경우 성격차이가 이들의 결혼생활의 질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유감스럽게도 결혼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부부를 변화시키기도 쉽지 않다(Olson & DeFrain, 2006). 따라서 결혼초기 부부들은 부부끼리의 선호유형이 다르다는 것을 파괴적이 아니라 건설적으로 이해하고 적응과정에 활용함으로써, 결혼생활을 유지해 가는 부부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결함 차이 수용하고 두 사람 간의 차이는 자연스러운 개인특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결혼을 앞둔 예비커플이나 결혼초기 부부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한다.

본 연구는 결혼기간에 따라 부부간의 갈등이 개인의 성격과 부부간의 성격 차이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성격변인으로 MBTI 성격유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성격이란 개념이 다차원적이어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로서 측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

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성격변인의 척도를 달리한 조사를 통하여 부부간의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어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결혼초기의 해체비용이 성격요인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밝히고자하는 목적으로 21~59세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나 최근 과거에 비해 노년기 이혼이 증가되고 있음을 볼 때 결혼이 장기간 유지되는 60대 이후의 부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선정과정에서 확률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지 못하여 그 결과를 한국 사회의 전체 부부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또한, 부부간의 갈등에는 여러 영역이 포함되나 본 연구에서는 영역별로 구분하지 않고 단일 차원으로 측정된 점 또한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석대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작업과 함께 갈등을 다차원적인 접근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주제어 : 성격유형, 부부갈등, 결혼기간

참 고 문 헌

- 강학중, 유영주. (2003). 한국 도시부부의 부부싸움 및 부부싸움 대처행동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 거주 기혼 남성과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2), 61-84.
- 고재홍, 전명진. (2003). 부부의 유사성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프로파일 유사성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3), 1-16.
- 공성숙. (2010). 부부클리닉 방문부부의 MBTI 성격유형과 결혼만족도, 이혼가능성, 긍정적 감정, 갈등조정방식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40(3), 336-348.
- 결혼생활의 고비, 7년 아니라 5년. (2007. 10. 29). dongAcom, 자료검색일 2010, 2. 9, 자료출처 <http://news.donga.com/3/all/20071029/8505599/1>
- 김갑숙, 최외선. (1992). 아내가 인지한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133-143.
- 김경미, 김영희. (2009). 부부의 성격특성과 갈등의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3), 327-352.
- 김명준, 전인식, 백연정. (2003). **성격유형과 우리의 삶 CD**.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김미령. (2009). 연령대에 따른 여성의 결혼만족도 차이 및 영향요인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26(8), 35-62.
- 김민녀, 채규만. (2006).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기혼자의 결혼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4), 655-671.
- 김영희, 정선영. (2007).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갈등대처 방식의 조절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5), 65-82.
- 김은지, 박재호. (2010). 부부간 유사성 및 일치도가 커뮤니케이션과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3), 403-423.
- 김정택, 심혜숙. (1995). **MBTI 질문과 응답**.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김화자, 윤종희. (1991).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55-170.
- 김희진. (2005). 결혼초기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긍정주의 심리치료 접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877-906.
- 마이어스, 맥컬리. (1985). *A guide to the development and use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김정택, 심혜숙, 제석봉 옮김 (2003). **MBTI 개발과 활용**.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마이어스, 커비. (1993). *Introduction to type dynamics and development*. 김정택, 김명준 옮김 (1999). **심리유형의 역동과 발달**.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박영희, 고재홍. (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65-83.
- 오선주. (2002). 본인과 배우자의 성격특성이 결혼의 질에 미치는 영향. 남편과 부인의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10), 201-215.
- 윤호균, 이선희. (2000). 부부의 MBTI 성격유형의 유사성과 의사소통 및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유형학회지**, 7(1), 1-21.
- 이선미, 전귀연. (2001). 결혼초기 남편과 아내의 부부갈등과 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203-220.

- 이정은, 이영호. (2000). 개인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간 의사소통 패턴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531-548.
- 이하식, 김경연. (2005). 부부성격유형의 일치·불일치에 따른 갈등수준과 갈등해결양식, **한국심리유형학회지**, 12, 51-79.
- 장휘숙. (1997). **가족심리학**. 서울: 박영사.
- 제갈정. (1993). 도시 중산층 주부의 스트레스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성경, 최연실. (2006). 결혼초기 기혼남녀의 원가족 특성과 갈등 및 상담요구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17-35.
- 조유리, 김경신. (2000). 부부의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광주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2), 1-21.
- 천혜정, 최혜경, 강인. (2006). 결혼지속년수에 따른 부부 갈등 및 갈등대처방법의 차이와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1), 179-202.
- 최규련. (1993).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관한 연구: 학동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3), 61-84.
- 최정숙. (2008). 결혼초기부부의 가족레질리언스 강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3(8), 103-152.
- 통계청. (2010). 보도자료. 2009년 이혼통계결과. 서울: 통계청.
- 한국심리검사연구소 (2003). **MBTI 전문가자격교육 초급 과정 자료집**. 부산: 한국 MBTI 연구소.
- 허윤미. (2001). 심리적 및 신체적 특성의 동질결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0(2), 429-448.
- 홍성례, 유영주. (2000). 부인의 정서적 지지와 남편의 결혼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61-76.
- Berko, R. M., Rosenfeld, L. B., & Samovar, L. A. (1997). *Connecting: A Culture-Sensitive Approach to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y*(2nd). New York: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 Blankenship, V., Hnat, S. M., Hess, T. G., & Brown, D. R. (1984). Reciprocal interaction and similarity of personality attribut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 415-432.
- Caspi, A., Herbener, E. S., & Ozer, D. J. (1992). Shared experiences and the similarity of personalities: A longitudinal study of married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281-291.
- Chrania, M. (2006). Personality influences on marital satisfaction: An examination of actor, partner, and interaction effect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Section B: *The Science and Engineering*, 67(6-B), 3504.
- Dawson, D. A. (1991). Family structure and children's health and well-being: Data from the 1988 National Health Interview Study on Child Healt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573-584.
- Dominian, J. (1995). *Marriage: The Definitive Guide to What Makes a Marriage Work*. London: Heinemann.
- Epstein, N. B., & Baucom, D. H. (2002). *Enhanced cognitive-behavioral therapy for couples: A contextual approach*.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Feng, D. & Baker, L. (1994). Spouse similarity in attitudes, personal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Behavior Genetics*, 24, 357-364.
- Gottman, J. M., & Levenson, R. W. (2000). The timing of divorce over a 14-year period: Predicting when a couple will divorce over a 14-year peri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3), 737-745.
- Gonzaga, G. C., Campo, B., & Bradbury, T. (2007). Similarity, convergence,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dating and married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 34-48.
- Hicks. & Elizabeth, M. (1989).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 and marital satisfaction using MBTI and the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Volume of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1/01-A, 81-107.
- Kurdek, L. A. (1995). Predicting change in marital satisfaction from husbands' and wives' conflict

- resolution styles, *Joura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153-164.
- Kwon, J. H., & Chae, G. M. (1999). A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8, 123-139.
- Lussier, Y., & Sabourin, S. (1999). Personality and marital adjustment: Utility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651-660.
- McGue, M., Bacon, S., & Lykken, D. T. (1993). Personality stability and change in early adulthood: A behavioral genetic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21(1), 96-109.
- Olson, D. H., & DeFrain, J. (2006). *Marriage and the Family: Diversity and Strengths*(5th Ed.). Mountain View, CA: Mayfield Publishing, Co.
- Papalia, D. E., & Olds, S. W. (1995). *Human Development*(6th Ed.), New York: McGraw-Hill, Inc.
- Robinson, J. L., Kagan, J., Reznick, J. S., & Corley, R. (1992). The heritability of inhibited and uninhibited behavior: A twin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28(6), 1030-1037.
- South, S. C., Turkheimer, E., & Oltmanns, T. F. (2008). Personality disorder symptoms and marital functioning.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6, 769-780.
- Williams, L., & Tappan, T. (1995). The utility of the Myers-Briggs perspective in couples counseling: A clinical framework.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3, 367-371.

접 수 일 : 2011. 05. 30.
수정완료일 : 2011. 08. 01.
게재확정일 : 2011. 08. 04.